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9월 29일 (제127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돕는 자는 가까이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2:9).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주 멀리 있다는 뜻이 아니다.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전혀 뜻밖인 곳에 있다는 뜻이다. 모세를 누가 도왔는가? 그의 형인 아론이 도왔고, 느헤미야는 그가 섬기던 아닥사스다왕이 도왔고, 다윗도 그의 곁에 있던 37명의 용사가 목숨을 다해 도왔다. 내가 70여 개국에 선교한 것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 의해 시작되었다. 그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연결하고, 다시 그것이 반복되어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다. 한 농부의 아낙이 봄이 되자 아이를 돌려 업고 논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했다. 저녁 무렵까지 일하던 이 아낙은 갑자기 집으로 달렸다. 허겁지겁 집에 도착한 아낙은 안방 문을 열고는 주저앉았다. “내 아이는 어디로 갔나?” 아낙은 다시 벌떡 일어나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갔다. “우리 아이 못 보았나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말했다. “당신 등에 업고 있는 아이는 누구 아이요?” ‘등에 업은 아이 3년 찾는다’는 말은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함을 의미하며, 이는 ‘물속에서 물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과 의미가 같다. 나를 돕는 자는 아주 가까이에 있고, 나를 돕는 하나님도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계시를 뜻한다. 그런데 이걸 아는가? 원수도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마10:36) 하셨다. 나에게 사기를 치는 자도 나를 아는 자이고, 내 것을 도적질하는 자도, 나를 시기하는 자도, 나를 미워하는 자도 가까이에 있는 자다. 예수님을 누가 팔았는가?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였고, 다윗을 누가 죽이려 했는가? 다윗이 아버지라고 부르던 사울이었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다. 요셉도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것이 아닌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돕는 자인가, 나를 해치는 자인가 구별하는 지혜를 갖자.

1945년, 일제 식민치하에서 해방된 우리나라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국토가 분단되었다. 1948년, 남한과 북한의 단독정부 수립은 국가의 분단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1950년 6·25전쟁으로 민족이 분단되었다. 국토나 국가의 분단보다도 동족상잔의 피로 얼룩진 민족의 분단은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크고 슬픈 역사적 상처가 되었고, 여전히 우리는 그 역사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전협정이 발효된 지 71년이 지났건만,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위협, 더구나 이제는 북한의 핵 위협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는

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핵무기 고도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핵보유국을 천명하며 전술핵무기를 휴전선에 전진 배치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 밀착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 군사 전문가들조차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전쟁은 일체의 희망을 앗아가는 끔찍한 재앙이기 때문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의 그늘에서 고통과 두려움에 절망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한반도에 반드시 평화

상 변경을 원치 않는다. 남과 북을 완충 지역으로 삼아 서로 대립하며 국제역학의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통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 역시 미국이 지켜줄 수 없다. 위기는 늘 도사리고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6·25전쟁 이후 70여 년을 지켜주시고 전쟁의 잿더미에서 눈부신 번영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뢰할 힘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꿈이 있다. 꿈같은 평화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날, 하나님의 자녀들



끝내야 한다. 우리 다음 세대들마저 이러한 전쟁의 위협 속에 살게 할 수는 없다. 전쟁으로 나라를 잃은 민족의 참상은 멀리 베트남 보트피플(Boat People)이나 최근의 시리아 난민사태로 잘 알고 있다. 국가가 없는 백성은 국가가 있는 개만큼도 대접받을 수 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 아닌가. 우리가 힘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을 때 어떤 국가적 재앙이 닥치는지는 지난 세기 우리의 아픈 역사를 통해서도,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24년 오늘,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전히 북한 정권은 피폐한 백성

를 지켜내야 한다. 우리 후손들이 더 이상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시대에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져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더 이상 대결의 구도는 안 된다. 갈등을 조장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의 구도로 바뀌어야 한다. 전시에든 평화를 위한 물밑대화는 이어지는 법이다.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앞장서야 한다.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평화통일의 역사는 결코 사람이 할 수 없다. 우리 주변에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 중, 러, 일이라는 세계 초강대국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나라도 한반도 지역의 현

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을 꿈꾼다. 언젠가 저 평양의 김일성광장을 평화의 광장으로 만들어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원한다. 백두산에서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사론의 꽃이 만발하며, 이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 날을 꿈꾼다. 남북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통일을 이루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기도하고, 기도하자. 오늘 10월 9일 수요일 오후 3시, 서울시청광장에 모여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다 같이 합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한은택 목사

제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위한 40일 작정기도

8월 26일(월) ~10월 4일(금)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9:16~27)



사후 심판 때는 각자 일한대로 상을 받는다

“학생은 졸업 후를 생각하고, 농부는 추수를 위해 땀을 흘린다. 나는 사후 면류관을 보고 충성한다.”

제가 지금 3,000개의 잠언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중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학생은 졸업 후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농부는 추수 때에 많은 수확을 그리며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자신의 한계와 싸우고 있습니다.

8월에 올림픽이 있었지요?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대미는 마라톤이 장식하지요. 이번 파리 올림픽은 예외였지만, 대개 마라톤의 피니쉬라인은 폐막식장인 메인스타디움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마라톤이 시작되고, 선수는 정말 험겨운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달립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42.195km를 달리는 거죠. 옆을 바라다볼 겨를도 없고, 거리에 나와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답례할 틈도 없이 속도를 조절하고 고통과 싸우며 끝없이 달립니다. 오르막이 심한 마의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토너는 달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장면을 바꾸어 마라토너가 땀을 뻘뻘 흘리며, 헉헉 거리고 달리고 있을 그때 폐막식이 열릴 메인스타디움을 볼까요? 메인스타디움에는 관중이 꽉 차 있고, 그들은 마라토너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광판을 통해 그들의 레이스를 보며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두주자가 들어오면 일동 기립하여 환호와 박수로 그를 맞이합니다. 이 환호는 마지막 주자가 들어올 때까지 진행됩니다. 이어서 시상식이 열리는데 우승한 선수와 2등, 3등 선수에게 메달과 면류관이 씌워집니다.

백지장도 받들면 낫다 함께 동참하자

저는 이 장면을 영화처럼 눈을 감고 그려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달리는 도상 위의 주자, 곧 마라토너입니다. 그 길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라토너인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결눈질하지 않고, 세상 풍류도 누리지 않습니다. 오직 메인스타디움인 천국을 향하여 나와의 싸움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 메인스타디움인 천국에서는 이걸 다 전광판을 통해 보고 있고, 예수님을 비롯해 먼저 간 믿음의 선전들, 성도들이 우리를 기다리며 응원하고 있다는 것ですよ. 우리가 메인스타디움에 들어서면 순간 모든 기립하여 박

수와 환호성으로 우리를 반길 것입니다. 그걸 상상하면 충분히 흥분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메인스타디움에 들어서는 모든 선수들을 향해 관중이 환호하지만, 다 시 상대에 오르지 않습니다. 목에 메달을 걸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려면 적어도 3등 안에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날 메인스타디움에 들어서면 예수님도, 우리의 선전들도 반기겠지만, 상은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다 구원은 얻지만, 상은 다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했는데 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면류관도 쓰고, 열고을, 한 고을의 왕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한 상에 앉아 떡을 떼며 심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꿈도 꾸어 봅시다. 그러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에게서 답을 얻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그날에 받을 상에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빌3:13~14).

그래서 그가 어찌 살았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빌3:7~9).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오직 주의 것으로 살았습니다(롬14:8). 주를 위해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 습니다(행20:24).

그는 자신이 우수한 성적으로 우승할 줄 알았습니다. 메인스타디움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맨발로 뛰어나와 안아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

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나의

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6~8).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하면 면류관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승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 오직 꾀대를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상대에 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실 포상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22:28~30).

주님과 한 상에 앉아 심판을 한다는데, 길어봐야 100년의 이 세상에 목을 뿔 이유가 없지요. 주를 위해 못할 것이 없지요. 누가 비웃으면 어떻습니까? 그날 보면 알게 됩니다. 까무러칠 겁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나 논공행상(論功行賞)의 이치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줍니다. 하늘의 상도 동일하게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받습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날에 하나님이 상과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16:27).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백성에게 공포합니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성벽 쌓기에 힘씁니다. 그러나 산발랴와 도비야 같은 훼방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롱과 비난을 일삼으며 일하는 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들을 분열시키려 했습니다. 또한 멀리서 구경만 하던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훼방자들과 방관자들은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결코 함께 누리지 못했고, 되레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운 자들은 그 공로가 인정되어 보상받습니다.

졸업장만 받지 말고 우등상을 받는 자가 되자

10월 9일, 서울시청광장에서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한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자꾸 하나?’ 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흘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이 강산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물려줘야 하기에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또 ‘뭐 다들 알아서 하겠지.’ 하는 방관자가 되어 서도 안 됩니다. 그는 훼방자나 일반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하셨다가 상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평화통일이 되어 김일성광장에서 집회하는 꿈을 꾸보세요. 지난주 영상으로 본 인도 뉴델리 집회처럼 갈급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낌없는 칭찬을 물론이고, “너희들 기도로 평화통일이 되었다.”라고 하시며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하는 척하지 말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여 그날에 상과 면류관을 받으시라.

10월 9일,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2008년 리먼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연준은 즉각 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대대적인 양적완화를 실행하여 손실을 제거하는 대신 희석을 시켰습니다. 이후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미국 정부는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여 경제활동을 할 때보다 더 큰 수준의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여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GDP를 실현하였습니다. 반면 투입된 자본의 원천이 기업으로 간주한다면,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흐름과 같은 세수(稅收)가 아니라 재무활동으로 조달된 차입금입니다. 규모의 면에서 보면 GDP 대비 공적부채의 비율은 2008년 64%에서 2024년 현재 132%까지 증가하였고 실질통화량 또한 3.5조 달러에서 6.7조 달러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단기금리 유지는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문학적인 부채 규모 때문에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1월 미국 대선을 통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은 국가의 CEO로서 세율을 높이지 않고 정상적인 조세수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창출능력이 높고 양질의 고용창출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산업이 미국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측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계승,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주도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제적 공

조를 천명하고 있지만, 공화당의 후보이자 전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측은 재임 시 미완수한 정책의 완수는 물론 자국 이익을 위하여 우방에 대한 혜택까지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사회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서방의 지배층과의 이권과도 직접적인 충돌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서방의 주요 언론매체와 조사기관들은 일제히 불편한 입장을 일성으로 표명하면서 민주당의 선거유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들과 보조금이 고갈된 이후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둔화된 소비지출은 선거 당일에 근접할수록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을 조용히 높이고 있습니다. 2017년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북한의 특정 지역에 대하여 초정밀 타격을 이행하고자 했을 때, 예수중심교단은 2017년 1월,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8차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를 회피하였습니다. 우리 예수중심교회의 성도들은 10월 9일 시청 앞 집회에 전부 참석하여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백성들도 해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이 도리이고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임윤석

:: 성경에세이 ::

적(敵)

여보게! 우연한 기회에 기도원 아랫마을에 사시는 장로님과 친분을 맺게 되었네. 그분은 사과농사를 비롯해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농사에 관한 한 베테랑이시지. 어느 날, 대화를 나누는 중, 그분 하시는 말씀이, “농부는 잡초와 해충과의 싸움입니다. 잠시 방심하면 밭에 잡초가 무성하고, 벌레가 잎사귀며 열매를 다 파먹습니다. 평생 싸워야 할 적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정말 웬만한 말씀이라 생각했네. 그런데 어디 농부만 평생 대적할 적이 있겠는가. 믿는 우리에게도 평생 싸워야 할 적이 있네. 귀신이라네. 귀신은 장로님이 평생 싸우는 잡초요, 해충과 같거든.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잡초가 세력이 되듯, 귀신이란 것들도 쫓아내지 않으면 그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세력을 펴고 내 인생을 쥐락펴락한다네. 우리 육체가 자기 집이라 한다면, 잡초가 워낙 번식력이 좋지 않은가. 귀신이란 놈도 딱 하면 한 놈이 나갔다가 일곱 귀신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군대 귀신을 데려오기도 하지. 그래서 매일 잡초를 뽑듯 매일 귀신을 쫓아야 하는 거라네.

또한 귀신은 해충과 같다네. 매일 살충제를 뿌리지 않으면 이것들이 잎이며 열매며 다 갉아먹어 소출이 없게 하지. 귀신도 매일 쫓지 않으면 우리 삶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놓는다네. 사업도 가정도 다 갉아먹고, 영혼마저 갉아먹어 쓸모없게 만들어버리지. 되는 꼴이 하나도 없게 만든다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귀신을 쫓으신 것이라네. 여보게! 요즘 살충제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왔더라고. 그러나 귀신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쫓겨나간단네. 우리 성도가 꿈을 꿔는데, 귀신이 나타나길래 칼을 휘둘러보고, 총을 쏘봐도 귀신이 꿈쩍도 안 하더라네. 그래서 갑자기 내 설교가 생각이 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가라.’ 했더니만, 귀신이 사라지더라네. 맞네. 귀신은 영물이라 칼이나 총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 땅 아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만 쫓겨나간단네. 예수 이름으로 늘 귀신을 쫓아내게. 그러면 삶에 천국이 임할 것이네.

봉우

:: 오늘의 메시지 ::

기도한 것을 믿어라

“내 목회 40년은 기도의 작품이다.” 기도원 집회에서 증거하신 목사님의 메시지로 모든 일에 하나님만 의지한 가운데 의심치 않고 믿음의 기도를 했더니 역사하셨다는 간증이다. ‘하나님을 무식할 정도로 믿고 기도했더니 믿음의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 목사님의 가르침이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다. 그것은 의심치 말고 받은 줄로 믿는 것이다(막11:23~24). 기도 응답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사 꺼내주셨는데 정작 기도한 자들은 미쳤다, 그의 천사라며 의심하는 어처구니없는 반응을 보인다(행11:5~5).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증거하며, 무엇이든 부족한 것을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고 권면한다. 대신 의심하는 자들은 두 마음을 품어 요동하는 물결 같아서 응답이 안 된다고 기록한다(약1:5~8).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더니 응답하셨다고 증거한다(롬4:18~24). 이제 우리는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위한 40일 작정기도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응답됨을 믿는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통일을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자.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에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꿈같은 응답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김상욱 목사



:: 생명의 말씀 ::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기도원 집회는 믿지 않는 가족들, 기도원에 처음 온 분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성령을 모르고 방언을 받지 못한 성도들, 성령체험을 했지만 소멸하고 하나님과 멀어졌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열매 맺기에 가장 좋은 기회이다. 특별히 이번 집회 기간에 하나님께서 총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문산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미국에서 오신 권사님의 남동생분이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셨는데, 매주 심방 예배를 드려 마음 문이 많이 열린 가운데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 거주 중인 권사님의 남편분이 한국에서의 일정을 조정하여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두 분 모두 기도원 사택에서 총회장 목사님을 직접 뵙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게 되었다. 성령의 역사는 줄줄이 이어져서 권사님을 전도하신 친구분의 동생도 경남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KTX를 타고 와 집회에 참석하였고,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기도를 하며 집회 3일째 오후에 침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뿐만이 아니었

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새신자도 기도원에 처음 와 성령을 체험하고 집회에 참석한 후 지금까지 매일 교회에 나와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위한 40일 작정기도회에 동참하고 있다. 이제 집회의 은혜와 열기는 총회장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10월 9일에 있을 제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위한 40일 작정기도로 이어지고 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친인척과 지인들을 강권하여 초대하고 총력으로 전도하고 물심양면으로 동참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특히 문산교회는 남북 평화통일과 북한 선교의 최전방 전초기지이다. 추석 연휴도 마다하고 명절 당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자원하여 작정기도회에 참석하신 성도들과 함께라 행복하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포도나무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 것, 바람 불 때 연을 날리고,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것,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이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한다.

장순천 목사

:: 성도간증 ::

:: 참된 깨달음 ::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저희 가정은 12년 동안 조립식 건물 3층에서 사업을 하며, 그 사업장 한켠 쪽방에 커튼을 치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옥상 쪽을 확장공사 하여 두 칸 방과 거실을 만들었죠. 그 시절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꿈을 키우고, 지금까지 28년을 달려왔습니다.

저희는 집이 없던 터라, 남편 이름, 제 이름으로 각각 이만 원, 삼만 원씩 몇 해 동안 청약저축을 하였습니다. 어느덧 300만 원씩 모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내 몸이 이상해. 심장이 안 뛰어. 하늘에 가면 내 상이 없을 것 같아 두려워.”라며,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이번 평화통일 집회에 심자.”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6살, 7살이었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전주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청약도 계속 터지고 있었는데 유일한 적금을 깨서 하늘에 심자고 하니 저는 황당했습니다.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았는

지 며칠 후에, “하나는 심고, 하나는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나는 심고, 하나는 청약에 넣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억지로 복을 하나 심었습니다.

어느 날 또 남편이 “여보, 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너무 심하게 빨리 뛰어. 천국 갈 때 심정지로 가는 것이 복이야.”라고 했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심장을 움켜쥐고 응급실로, 검사실로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병명은 나오지 않았지요. 남편은 “내 소원이 있는데, 천국 가기 전에 가장 값나가는 것을 팔아서 심고 싶어. 천국에 가면 내 상이 없을 것 같아 두려워.”라고 했습니다. 마침 춘계집회 중이었고, 타던 쏘렌토를 팔아서 900만 원 못 되는 돈을 백원 단위까지 심었습니다. 복 씨를 하나 더 심은 겁니다.

하나는 억지로 심었고, 하나는 “과부가 되면 재혼 일회권을 줄게. 꼭 한번은 재혼해도 된다.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은 재혼해도 돼.” 하며 우스갯소리를 하며 심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해마다 건강해지네요. 천국에 간다던 남편은 해마다 건강해졌습니다. 8살 된 초등학교 딸의 등원 길에 같이 가고 싶은데, 걷기가 너무 힘들고 숨이 차서 매일 같이 가주지 못해 마음 아파했던 아빠는 지금 한 시간, 두 시간도 막 걷습니다. 현재 고1, 중3이 된 아이들과 47살에 자연임신이 되어 자연분만 30분 만에 셋째를 출산하는 기쁨까지 누렸습니

다. 총회장 목사님 유튜브를 볼 때마다 ‘할배, 할배’ 하며 뽀뽀를 쪽~합니다.

드디어 그 심은 복 씨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전주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 “전주 강남 에코시티지.”

“에코시티에서 어디가 가장 좋아?”

“포레나아파트지 전주에 40층 넘는 아파트가 없잖아. 랜드마크.”

“전주랜드마크 포레나에서 어디가 가장 좋아?”

“102동이지.”

“102동에서 어디가 가장 좋아?”

“1.2라인이 뽕뷰야. 남향이고.”

“102동 뽕뷰 남향 중에 어디가 가장 좋아?”, “탑층이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저의 집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300만 원의 100배가 넘는 축복을 받았고, 차를 팔아드린 것으로 집이 한 채 더 생겼습니다. 전주의 강남에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물질의 공급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 돌려주십니다. 이번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한 평화통일 기도성회에도 복의 씨를 심어봅니다. 할렐루야!

전주예수중심교회 한희영 집사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신호등은 시간 되면 바뀐다
기도했으면 응답은 온다
조급해서 잘된 일 없다, 때를 기다려라 -봉우

:: 일본에서 온 편지 ::

가치 있는 명절

추석 명절 잘 지내셨나요?

추석은 우리나라 명절 중에 제일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을 가리켜 ‘한가위’라고 하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도 합니다. 풍성한 계절이지요.

추석은 또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익은 햅쌀과 햇과일을 추수하고 먹으며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나라마다 고유의 명절은 즐거운 절기이며 축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명절은 주로 유교적인 전통이 뿌리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겐 명절이 즐겁기도 하지만 무거운 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절은 만남의 절기로 평소에 만나기 힘든 분들도 명분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개선의 기회입니다.

즐거운 명절을 위해 허례허식을 버리고,

나보다는 가족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느라 바쁘고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로 만남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얼마든지 섬김과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본받아 아름다운 섬김의 명절을 보내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진정한 만족과 참된 행복이 있음을 보여주고 알려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명절을 보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기 때문이고, 그 행함을 통해 내 가족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명절의 바쁨과 흥분, 안일함 속에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만 되면 여러 가지 계획과 행사 속에 예수님을 잘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명절이 끝나고 남는 것은 빈 마음, 공허함만 남고

커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충만한 명절은 축제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매일 매일이 축제 같은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목마르지 않고 진정한 살림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제일 받기 원하시는 것이며,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감사이기도 합니다. 이웃 친지들과 함께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중심교단의 성도들은 안 믿는 가족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몸으로 나타내 본이 되는 명절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 50:23).

서동경 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꿈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하셨을 때, 그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여, 저는 말이 둔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출4:10).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친히 함께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모세가 해야 할 말과 그 말을 대신 전할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지 못하는 나약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꿈을 꾸는 모세로 변화시켰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중에 자신의 꿈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역 초기부터 세계를 복음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세계교구’라는 꿈을 놓고 기도하셨으며, 그 결과로 40년이 지난 지금 74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꿈꾸며 11차에 걸친 기도성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제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배출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직접 교육하고 계시며, 솔로몬보다 많은 잠언을 쓸 것이라는 목표로 매주 우리에게 빨간판에 잠언을 써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주는 과정을 자신의 삶을 통해 설교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목사님 모두 하나님을 만난 이후 원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꿈을 현실로 이루었습니다.

목사님 밑에서 30년 이상 설교를 듣고 교육받은 나 자신이 이루어놓은 것은 소박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어찌면 현실에 갇혀 꿈도 꾸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결심해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면, 나도 현실을 뛰어넘는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다! 아멘.

송명국 집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JC 아카데미 개강

9월 24일(화) 오후 8시
유튜브 생방송(노량진 교육관)
문의 02. 533. 9191